



◆ [Focus]

- (투자규제) 국가핵심역량수호법(NCCDA) 논의 동향 및 시사점

◆ [What's News]

- (경제통상) UN 보고서, 美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 비판 목소리
- (통상규제) 미 상무부, 중국 슈퍼컴퓨팅용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 전망
- (반도체) 마이크론, 뉴욕에 1,0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결정
- (에너지) 美 에너지부, 청정에너지의 DPA 활용을 위한 논평(RFI) 요청
- (친환경) PIIE, 범세계적, 징벌적인 탄소세 도입 주장

FOCUS

1. [투자규제] 국가핵심역량수호법(NCCDA) 논의 동향 및 시사점

□ 국가핵심역량수호법(NCCDA) 개요

- 공급망 행정명령(E.O.14017)에 명시된 국가핵심역량의 경쟁력 제고
 - * 반도체 제조, 대용량 배터리, 중요 광물, 의약품, 인공지능, 바이오경제, 양자 기술
 - 국가핵심역량 기술·항목과 관련한 해외투자를 심사하고 규제해
우려국 또는 우려 단체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 탄력성을 약화
 - * 우려국 : 중국, 러시아, 이란, 북한, 쿠바, 베네수엘라
 - 동 법안은 하원 대중경쟁법(America Competes Act)에 포함되었으나,
대중경쟁법이 반도체·과학법으로 축소 통과되는 과정에서 제외됨.
-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안보 심사 관련 첫 입법 사례
 - 외국인 투자(inbound investment)에 규제는 여러 국가가 채택하고
있지만, 해외투자(outbound investment)에 대한 공식 안보 심사는
중국 이외에 없어 현지의 관심 집중

- 법안이 통과될 경우, 투자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을 요구하며 국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존재

<국가핵심역량수호법 주요 내용>

항 목	세부 내용
국가핵심역량	반도체, 배터리, 주요 광물, 의약품, 인공지능, 양자 기술, 바이오경제
규제 활동	① 핵심역량의 개발·생산·확장·판매, ② 핵심역량 관련 기술의 공개·공유·이전·면허 발급, ③ 핵심역량 관련 투자·자본제공·컨설팅
규제 대상	우려국(중국, 러시아, 이란, 북한, 쿠바, 베네수엘라)에 본사를 두거나 우려국의 제휴 또는 영향을 받는 단체
면제 대상	① 미소기준(De minis rule) 거래, ② 법안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(검토 권한은 존재), ③ 최종 완제품에 대한 면허 발급
역외 적용	우려국과 우려 단체와 관련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미국인, 외국인 또는 그 계열사를 모두 포함
프로세스	규제 활동에 참여하기 45일 전에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, 위원회는 검토 결과에 따라 거래 중단·금지를 통보
위원회	대통령 또는 피지명자가 의장을 역임하며, 상무부, 재무부, 국방부, 법무부 등 11개 부처에서 선발된 담당자로 구성
처벌	최대 25만 달러의 과징금 및 규제 회피 활동에 대한 민사 처벌

(주 : 최종 개정안은 미공개 상태로, '22.06.12 개정안 기준으로 작성)

[자료 : Congress.gov, Covington, Pillsbury]

□ 법안 추진 동향

○ 주요 의원들, 백악관에 서한 발송(9.27)

-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장,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8명의 주요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행정 조치를 통한 투자 모니터링을 촉구
- 우려국에 대한 투자를 견제하기 위해 선제 행정 조치를 취한 이후 법령 조항을 수정·강화해 나갈 것을 주장했으며,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는 CFIUS도 행정명령으로 설립됐던 점을 강조

○ 2023 국방수권법안(NDAA) 반영 추진 중(9.29)

-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 위원회 청문회에서 완화된

NCCDA 개정안을 내년 국방수권법(NDAA)에 반영할 것을 주장

- 투자감시 대상을 “이미 수출 통제 대상인 반도체, 인공지능, 양자 컴퓨팅 또는 군사 기술과 같은 핵심기술과 관련된 투자”로 명시했으며, 투자자는 투자 개시일로부터 15일 안에 위원회 통지가 원칙
- NCCDA 발의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완화된 개정안이 행정명령보다 의회 통과가 먼저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지

□ 법제화 가능성

- 많은 현지 전문가는 단기간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
 -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장은 국방수권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 -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은 '21년에 NCCDA를 하원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려고 시도했지만, 산업계 반대로 미국 경쟁법에 반영된 만큼, 행정조치 이외의 방안으로는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전망
 - 현재 단계에선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미국상공회의소와 산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
 -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은 NCCDA가 행정 조치로 조속하게 도입되기보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 의회 입법되기를 선호
 - 예상보다 조기에 입법될 가능성도 존재해 주의 필요
 - 美 의회는 입법을 선호함에 따라, 백악관보다 먼저 법제화를 하기 위해 완화된 NCCDA를 초당적으로 승인할 가능성이 존재
 - 2023 NDAA에는 NCCDA, 대만정책법, CECA 등 많은 대중경쟁 법안이 포함될 전망으로, 동 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
 - 반도체·과학법이 ‘우려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’를 포함하고도 최종 입법됨에 따라, 입법 장벽이 NCCDA 논의 초기보다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고려
- * 단, NCCDA는 보조금 수혜 기업에만 국한된 가드레일 조항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됨.

□ 우리 기업의 위기와 기회

○ 우리 기업 대중 투자 영향

- 역외 적용 조항에 따라, 우리 기업의 대중 거래에 미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시행 초기 적법성 검토를 위해 세계적으로 투자 집행이 지연될 전망

- 특히, 중국 첨단 기술 기업과 거래하거나, 중국 내 첨단 기술 관련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은 법안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

○ 반도체·배터리·바이오 부문 외국 투자가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 존재

- 대중 투자 장벽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,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 역량이 있는 국가로 선회하며, 외국자본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큼.

* 자료 : 로이터, 인사이드트레이드, 블룸버그(9.29) 등

□ [경제통상] UN 보고서, 美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에 비판 목소리

- 유엔무역개발회의(U.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) 보고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과 물가 억제 정책에 비판
 -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부진으로 분석하면서,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은 세계 경제 성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
 - 미 금리가 1% 포인트씩 오를 경우,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가 각각 0.5 ~ 0.8%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,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회복이 더 더뎠을 것이라고 분석
 - 보고서는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대신 (1)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, (2) 금융시장 규제 개선, (3)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확대 권고

* 자료 : 폴리τικο(10.4)

□ [통상규제] 미 상무부, 중국 슈퍼컴퓨팅용 반도체 수출 추가 제재 전망

- 미 상무부가 이르면 금주 내로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 할 것으로 관측
 - 뉴욕타임스는 특히 중국 슈퍼컴퓨팅·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미국 마이크로칩이 사용되는 걸 막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하며 미국의 '해외직접생산품규칙(FDPR)'이 활용 될 것으로 예측
 - * 미 상무부는 9월 초,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AI·슈퍼컴퓨팅용 그래픽처리 장치 제품의 중국 수출 금지 명령(수출 허가제 도입)을 내린 바 있음.
 - 미국의 FDPR은 외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, 기술 등이 사용했다면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, 중국의 슈퍼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·기관 상당수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
 - * 2020년 미 트럼프 정부에서 FDPR을 활용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제재

- 미국은 중국 정부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 민족 감시와 모의 핵실험, 최신무기 개발에 이용한다고 비판
- 현지 언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전략으로 분석

* 자료 : 뉴욕타임스(10.3)

□ [반도체] 마이크론, 뉴욕에 1,0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결정

-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이 뉴욕 주에 대형 반도체 공장 신설을 위해 20년간 최대 1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 발표
 -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주로 일본, 대만, 싱가포르에 위치한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왔으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'반도체 과학법'(CHIPS Act)에 의해 본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
 - CHIPS Act는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법안으로 미국 내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및 25%의 세액 공제 혜택 제공
 - 마이크론의 뉴욕 공장은 5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뉴욕 주로부터는 약 55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
 - 척 슈머 원내대표는 본 결정에 관련하여 많은 수의 반도체 생산공장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지만, 이제부터는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

* 자료 : 블룸버그(10.4)

□ [에너지] 美 에너지부, 청정에너지의 DPA 활용을 위한 논평(RFI) 요청

- 美 에너지부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전력망 강화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(DPA)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평 요청
 - 미국 에너지부(DOE)는 기후변화 대응과 고용 창출, 경제 번영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 제조 및 배치 가속화 노력을 목적으로 국방물자생산법(DPA) 권한 활용을 위한 정보 요청(RFI) 개시
 - 정보를 요청한 대상 기술로는 변압기 및 전력망 구성요소, 태양광 발전 단열재, 청정 수소 개발을 위한 금속 및 연료 전지 등으로 특히 공급망 문제와 중소기업 관련된 제조 인력에 관한 투자, 형평성이나 지역사회 접근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(~ 11.30 까지)
- * <https://www.energy.gov/mesc/defense-production-act-request-information>

* 자료 : 에너지부(10.3), 폴리테크(10.3)

□ [친환경] PIIE, 범세계적, 징벌적인 탄소세 도입 주장

-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PIIE)의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 관세와 '기후클럽'의 전 세계적 도입은 '무임승차*'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
 - * 탄소세 정책을 이행하지 않지만, 비회원국 사이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국가
 - CBAM을 비롯한 국가별 탄소세 적용은 가입국과 비가입국 간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지만, 비가입국의 탄소세 참여 의지를 꺾고, 실질적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
 - * 특히, 관세를 피하고자 정책 동참보다 비가입국 간의 교역 확대로 선회
 - 이에 보고서는 '기후클럽' 같은 징벌적 관세를 통해 비회원국의 탄소 감축 운동 참여율을 높이고 탄소세의 세계적 확대를 주장

* 자료 :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9월)

Notice

□ 주요 경제통상 일정

10.5(수)	美 9월 국제무역수지 (International Trade Balance)
10.5(수)	S&P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(S&P Services PMI)
10.7(금)	美 9월 실업률 (Unemployment Rate)
9.30(금)	美 25~45세 노동 참여율 (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, Ages 24-54)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행사안내) 2022 국제기구 주요기업 등 청년 취업설명회(11월 3일, 워싱턴DC)
- (자료발간) 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5)
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(Fed Now) 출시 전망 및 시사점(US22-34)
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 전략(US22-33)
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 * 공개 예정
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- (인터뷰) 반도체산업협회(SIA) John Neuffer인터뷰 KOTRA YouTube 업로드



→ 인터뷰 바로 보기(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)